

제285회 임시회

시정 질문·답변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 활 섭 의원

- 국비사업의 차질없는 이행 당부
- 실효성 있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송 활 섭 의 원

◎ 송활섭 의원

신탄나루·회덕 향수가 묻어나는 나의 고향 대덕 발전을 위해서 선봉에 나선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대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전시가 추진 중인 국비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하고 대전 시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수단이 바로 재정입니다.

필요한 만큼 무한정 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국제 위주의 세계 구조에서 지방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대전시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의 재정활동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크고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들 또한 대부분 국가의 재정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바, 대전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사업을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가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관세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 지속되는 내수 부진과 무역수지

감소 등에 따른 정부의 건전재정기조는 강화하고 있으며, 탄핵 정국하에서 예산 삭감, 추경 지연 등 국가재정의 확장적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대전시정이 보여준 담대하고 혁신적인 구상과 추진력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전의 국비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안정적 재원 확보 전략은 마련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2025년 3월 현재 기준으로 사업 소요재원에 국비가 포함된 90개 사업의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국비 확보율은 5.2%입니다.

사업마다 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앞으로 확보해야 할 국비가 총 22조 원 규모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국비는 약 1조 1천억 정도입니다.

국비 10조 원이 소요되는 기업 금융지원 은행 유치 공약사업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소호은행 본사 유치로 대체되더라도 국비 확보율은 9.3%에 그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들은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 해마다 순차적으로 국비를 교부받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사업들이 일부 눈에 띕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대전시의 도시공간구조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자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5년 올해 필요 예산으로 1,846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배정된 예산은 587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대전시 간에 계획공정률 산정의 적정성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웹툰 콘텐츠 창작유통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웹툰산업은 전체 콘텐츠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부가가치율이 매우 높고 캐릭터 등을 활용한 다른 콘텐츠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높은 산업분야입니다.

해당 사업이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잘 진행된다면 지역대학에서 연 250여 명씩 배출되는 청년 인재들의 역외 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비 확보 실적이 전무합니다.

작년 12월 계엄 사태 등으로 인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의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예산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행 시기입니다.

특히 콘텐츠산업과 같이 인적자원의 역량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에는 인재 확보의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우려스럽습니다.

국비 미반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웹툰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토종주 금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증가하는 레저산업 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대청호 관광자원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 효과도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및 예산이 당초 2024년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440억 원으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제출자료에는 2028년까지 총 20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장되고 총사업비는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전시는 사업 축소 없이 기존 계획을 유지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전시의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도시교통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대전도시철도 3·4·5호선 추진,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구간 확장 및 지하화사업은 대전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광역 충청권의 거점도시로서 대전의 동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들에 소요되는 국비 규모가 무려 약 8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사업추진 시기가 중장기에 걸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소요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 명백합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 및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의 인구·사회 구조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들 사업이 과연 차질 없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국가 계획 반영의 당위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만의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지방비 부담과 민자 유치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90개 사업에 대한 3월 현재 지방비 확보율은 18.8%입니다. 총 소요액 약 5조 6천억 중 약 1조 원가량만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비 또한 국비와 마찬가지로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는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할지 의문이 생기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뷰티산업진흥원의 경우 총사업비 139억 원 중 국비 29억 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나 지방비 110억 원 중 19억 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완료 예정인데 약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이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지방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걱정이 되는 사업들이 여러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질문하기에는 시간상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비 부담의 현실성과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검토대상 90개 사업 중 2026년이 완료 시점인 41개 사업이 있고 이 중 올 3월 현재까지 예산집행률이 25% 미만인 사업이 17개나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산 확보의 현실성을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선택과 집중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자 유치의 경우 검토대상 90개 사업에 대한 현재 민자 확보율은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총 소요액 약 4조 1천억 원 중 1,245억 원만 확보된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만 약 3조 6천억 원의 민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국내 기업들의 자금유동성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특별한 민자유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9일 국내의 유망기업 6개사와 MOU를 체결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자부와 중기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전의 R&D 인프라와 연계한 우주산업, 양자산업 육성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이 대한민국 과학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일류 경제도시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대전시가 빠듯한 재정여건에도 시비를 투자하고 있고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카이스트나 정부출연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는 있지만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고 도출된 R&D 성과들을 활용할 지역기업 자체도 적어서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데 기여도가 낮다는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전에서 창출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정수들이 대전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지역산업 구조의 변화와 지역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학생 비율이 남학생은 25.1%, 여학생은 8.9%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울감 경험률이 남학생 23.1%, 여학생 32.5%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상승하면서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심각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신체활동은 부족하고 정신건강은 위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 교육청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추진해온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들은 파편적이고 단발성 프로그램에 그쳤을 뿐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근본적으로 늘리고 체력을 강화하는 효과는 얻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협력과 도전정신을 기르고 있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팀워크를 경험하는 것은 교과 학습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에 오늘 저는 대전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외 사례와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전시교육청의 특색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몇 개 살펴 보겠습니다.

독일은 학교스포츠는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방과후 스포츠 사업을 운영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두세 개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움직이는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하루 최소 한두 시간의 신체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방과후 커뮤니티를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에 체육활동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틈새운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서울의 시즌2 다시 뛰는 아침, 부산의 아침 체인지, 경기도의 기지개 체조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잠시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시 56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57분 영상자료 종료)

교육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화면만 봐도 신나서 몸을 움직이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교육감께서 대전의 특색 있는 틈새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 학생의 체력이 증진되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설동호 교육감님!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었다면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결과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3년간 PAPS 결과를 공개해 주시고 학생들의 체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과 체육동아리가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기본계획에서 모든 초중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의 체육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를 보면 학생들의 방과후 체육활동 참여율이 여전히 낮고 프로그램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들어옵니다.

체육활동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의 장입니다.

팀워크와 리더십, 협력, 도전정신을 배우는 교육적 가치를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 체육동아리와 학교스포츠클럽 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대전시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과 체육동아리 가입 현황과 학생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께 질문하고 제안한 사항이 대전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다가오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따뜻한 봄날 점심 이후에 하는데 보니까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좀

짧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의원님께서 참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대로 설명하려면 반나절은 필요한 내용이 많아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하고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호는 행동입니다, 행동.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무리 치밀한 정책도 실행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 수많은 현안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보물산 프로젝트, 도시철도 2호선, 유성터미널, 대전교도소 이전 등 수많은 현안사업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좌초되고 실질적인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도 제가 시장 되고 7,400억이면 하겠다는 1차 보고를 받고 일주일 만에 1조 4천억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또 조금 있으니 1조 6천억입니다, 이게 과거 대전시정입니다.

그때 만약 강력한 실행력으로 일을 했다면 지금 1조 5천억 드는 트램은 1조 원 안에 이미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지도자, 정책적인 결정과 추진력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방기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혈세가 수천억이 더 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비나 시비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대전시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못 이루면 제 다음 시장이라도 이어서 해야 될 만큼 정책을 짜고 실행을 옮겨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송활섭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쉬지 않고 앞으로 달려야 된다.

그래야 이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저도 그 소명을 쥐고 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도 역사적인

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소명을 우리는 함께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활섭 의원님께서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방안,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단계적 추진방안 등 여러 가지 물으셨습시다만 때로는 임기에 끝나지 않을 사업이 많습니다.

산단 이런 것은 대부분 2030년, 조금 더 늦으면 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현안에 따라,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2030년이나 2040년이라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중단하면 이 도시는 미래가 없다.

또 나중에 10년 후에 다시 추진하려고 하면 또 10년이 늦고 20년이 늦고, 1조 원이면 될 일을 3조가 들고 4조가 들고 이런 상황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장 되고 와서 간부들한테 많이 “왜 이렇게 트램이 늦어졌느냐.” 물어봤을 때 “정책결정의 부재입니다.”, 정책결정자가 정책결정을 안 함으로써 수천억이 날아간 겁니다.

그 책임이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결국 눈덩이처럼 사업비가 커진 겁니다, 사업이 길어지면서.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전철을 뱉어서는 안 된다, 시정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8년 만에 착공을 했고 2028년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또 1년이라도 늦어지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정부에 1,846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87억 원이 반영됐고 추가 증액요청을 국회 차원에 했습니다.

현정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감액을 하고 증액이 없는 국회 예산의결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감액한 만큼 증액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증액하는 지역의 도시마다 현안사업이 얹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현안사업도 있고, 그게 다 작년에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이 문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문제점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정파의 싸움 때문에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왔고 많은 도시들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차 추경이 진행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액하려고 했다가 다 무산된 전국의 사업들이 다시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제 활성화나 이런 데에 집중하려고 하는 사·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램이 2028년 준공하기까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중앙정부 기재부는 대전시가 이 정도면 올 공사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 대전시는 트램 같은 경우 철거할 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고 빠르게 진척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달라고 첫해부터 얘기한 건데 이게 조금 서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떤 식이냐면 2028년에 준공할 때 시비도 투입이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만 만약 국비가 적은 해는 시비를 선 투입해서라도 가면서, 그러면 2028년 끝으로 갈수록 정부에서 줘야 될 국비가 커지기 때문에 정부도 아마 내년, 후년 계속 이에 대한 적절한 배분을 하리라고 보고, 이걸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1조 5천억이 넘는, 이걸 확정이, 시비하고 국비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미 예산은 확보됐고 이걸 금년에 얼마를 쓰느냐, 내년에 얼마를 쓰느냐 이것의 조정 문제는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 확보가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안 맞다, 표현이.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됐다, 그런데 금년, 내년, 후년 이렇게 가면서 몇 해에 얼마씩 할 건지는 이걸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2천억을 금년에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고 해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이미 총사업비 결정한 순간 국비는 확보됐다, 단지 그해에 써야 될 돈이 적합한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램 부분은 그런 것들을 상의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8,552억이고 지방비가 6,517억인데 저희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야구장 같은 경우 전 시장 때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만 예산집중 해서 투입은 제 대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산 부담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전에 했던 제가 했던 후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완화하고 조절해 가는 것은 서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는 트램 문제가 있고, 용계동 종합운동장도 돈이 많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트램 같은 경우는 워낙 시급한 사업이고 종합운동장 이런 것은 완급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착공해서라도.

여러 가지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문화웹툰 콘텐츠 클러스터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난해에 경제성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으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B/C 1.08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비 반영이 될 것으로 봤는데 지난번 하면서 역시 설계비 15억이 국정의 혼란 틈에서 이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정부예산은 발만 담그면 나머지는 확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비 단 몇억이라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총사업비 399억 중에 설계비 15억을 우선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웹툰학과 학생들이 지금 거의 30% 가까이 충청도 출신이예요.

그리고 대전 웹툰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될 사업이고요.

2024년도 문체부 공모사업 결과에서도 6개 기관 중에 대전시가 1위 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해서 중부권 웹툰인력 양성, 웹툰학과가 있는 고등학교나 대학의 학생들이 이 도시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가 치밀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항상 목표는 있습니다만 때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1년이든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지 않으면 더 늦어지고 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토종주 금강 자전거길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본래는,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한 440억 정도 들 걸로 봤고요.

그런데 사업구간 일부 축소는 검토해 봤습니다만 축소를 안 해도 여러 가지 사업비를 산정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도로 확장 없이 데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보고, 대규모 절토나 성토, 옹벽 구조물 시공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현재로는 한 200억 정도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24년도 중앙부처 공모 시행 이전에 돼서 국비를 저희가 좀 많이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중앙부처가 2024년도 이후에 공모한 것에 대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비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인데 이걸 동구하고 대덕구 사이에 있는 대청호 호반을 자전거길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예산적인 현황을 보면서, 동구·대덕구 구청장들하고 상의하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3·4·5호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3·4·5호선, 오전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도시철도 2호선 하나 놓는 데, 착공하는 데 28년이 걸렸고 준공하려면 30년이 걸리는데 2028년에 도시철도 2호선이 끝나고 3호선을 만약 그때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 있을 겁니다.

3호선을 끝내는 데 현재 지난 과거를 우리가 따져보면 또 30년 걸릴 것 아니겠어요?

30년이면, 저는 30년 살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못 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2호선은 2호선대로 이미 다 확정돼서 착공을 하기 때문에 3·4·5호선도 기본계획을 짜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시작해서 이게 국토계획에 반영돼서 그중에서 3·4·5호선을 우리가 정부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어느 노선부터, 2호선을 하면서도, 또 예를 들어서 이게 확정되면 어느 구간을 먼저 하는 방식으로 3·4·5호선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고.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장우 시장 때 3·4·5호선까지 준공한다는, 완료하겠다.”
그런데 처음부터 보면, 추진하겠다, 이 3·4·5호선 문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런 취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노선 발표는 했고요, 노선을 하면서 중앙정부하고 B/C나 여러 가지 경제상황하면서 이걸 체계적으로 가다듬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은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이 혼란스럽지만,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호남고속도로 일부를 국가산단 있는 부분이라도 지하화하는 것이 땅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다, 끊임없이 제가 장관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이 문제는 국정이 정상화되면 더 노력을 해서, 호남고속도로 전 구간을 지하화하면 최상이겠습니까만 정부도 재정적인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어렵다면 가장 필요한 유성IC부터 서대전IC 구간의 가장 핵심 부분을 지하로 넣으면 국가산단 부분의 땅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때문에 유성지역 일부가 서로 단절돼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봐서 이걸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뷰티산업진흥원을 말씀하셨는데, 올 9월에 착공하는데 왜 시비가 적게 돼 있느냐, 9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그 돈이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쓸 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내년도이기 때문에 9월에 착공하면 9, 10, 11월 동절기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 돈만 있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국비예산 확보의 현실성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순위, 이거는 맞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요.

중앙정부도 지금 상당히 세수가 줄어서 아마 굉장히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운영뿐만 아니고 저희, 교육청 다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시장도 세수가 막 늘어날 때 하면 훨씬 더 편한데, 제가 구청장 할 때도 유일하게 세수가 계속 줄어서 고생했는데 또 요즘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소비도 위축돼 있지, 부동산 거래도 감소돼 있지, 지방교부세도 감소하고 있지, 그래서 이번 세출문제에 있어서 전략사업, 이 도시가 꼭 가야 될 사업, 해야 될 사업들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서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배분을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택과 집중은 저희도 잘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전략사업, 도시의 경쟁력을 확실히 키울 전략사업, 일자리, 소상공인, 자영업, 결혼, 출생, 보육 이런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전폭적으로 더 지원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문제, 소상공인들 대환하고 대출받는 문제, 6천억까지 늘리는 문제, 최근에 1억 400만 원까지 지난해 매출이었던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50만 원 긴급지원하는 문제 등이 저희의 가장 민생과 관련된 깊은 논의다.

그리고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잘 의결해 주신, 작은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권 반환행사 등 이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정책들은 더 만들어서 서민들 정책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문제입니다, 산업단지는 535만 평쯤 구축계획이 거의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금 발표를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국정이 혼란스러워서 좀 지켜보고 있고, 우선 구축계획은 완료를 했는데 발표를 하는 순간 토지거래를 묶기 때문에, 재산권이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표하는 날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바꾸기 때문에 남아 있는 발표 안 한 땅에 대해

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철저히 보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약속대로 500만 평 플러스알파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대신에 시기가 대략 행정절차를 밟고 하는 과정에서 2030년, 국가정책에 따라서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2030년이 아니라 2040년까지라도 산업단지 구축은 이 도시의 경쟁력, 일자리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속 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업도 산업용지가 필요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한 도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이 중에서 민자가 투입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와 민자가 결합하는 방식도 있고 시가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첨단전략 산업 육성 산단 총 11개소, 사업비 3조 6천억이 지금 투자됩니다.

우선 서구 평촌·한남대캠퍼스·장대도침·탑립·전민·하기·안산·오동·봉곡·삼정·신대지구 10개 산단은 LH·수자원공사·대전도시공사·산업은행 등 사업자로부터 약 3조 2천억의 투자유치를 받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개 산단은 아직 미공개입니다만 이걸 공개하기 아직 어렵고요, 이 문제도 지금 타당성 검사를 완료하고 언론에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사와 민간으로부터 한 4천억의 사업비 투자를 유치할 계획인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단 500만 평을 구축하지만 여기에 꼭 필요한 게 전력입니다, 전력난 어떻게 할 것이냐, 용수, 가스 이 문제인데 지금 에너지 자급화를 위해서 우리가 발전소 건립 등 협약도 한 게 있습니다만 100% 대전 공단에서 쓰는, 산단에서 쓰는 모든 것, 시민들이 해도, 어느 도시에서 끌고 오지 않아도 100% 전력이 자급되는 그걸 만들어야겠다는 게 저희 목표이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계속 짜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용수는 이미 우리 가장 가까운 대청호에 생활용수뿐만 아니고 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도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대전시는 이 부분은 최적의 상황

이고 단지 가스 문제에 있어서 CNCITY나 이런 데에서 선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성동같이 돈이 많이 드는 곳에 대한 선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시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만 조례를 통해서 시가 선투자해서라도 시민들 또 산단에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투입하는 방안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대개 지금 현재는 대부분 2030 계획이고 조금 길어지면 아마 2030에서 조금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500만 평 플러스알파만큼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게 시 재정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자본·LH·산업은행 이런 데에서 선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대전시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지역 파급효과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류 경제도시를 표방하고 있고요.

일류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지 않는 도시가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명확히 이겁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이 도시에서 삶을 향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으려면 도시의 산업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통이 좋고 국토의 중심이고 과학기술, 혁신기술을 쏟아내는 것만으로는 이 도시에 일자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때로는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는 핵심정책으로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대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은 뭐냐, 저희가 정한 게 있습니다.

ABCDQR입니다.

일부에서는 ABCDEQR로 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시다만, E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꼭 해야 되는 건데 전략산업이 너무 방만하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ABCDQR입니다.

Aerospace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칩, 반도체 칩 중에서는 국방반도체, 전력반도체, 이것을 완전히 대전의 생태계,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반도체, 컨트롤하는 반도체만큼은 대전에서 생산한다.

지금은 거의 전량 수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D는 디펜스입니다, 국방.

방위사업청 이전하면서 지금 방산기업이 계속 이주하고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더 내려면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방산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양자입니다, 양자.

다른 도시들이 지금 양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자과학자의 반이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를 연구하는 기관이 대부분 대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협의를 다 해서 함께, 지난번에 서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는 양자를 연구하는 기관을 모으고 싶어도 쉽지 않고, 이미 대전이 싹쓸이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전시가 대한민국 양자산업을 이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까지 구조는 설계했고, 그리고 역시 로봇입니다, 로봇.

로봇 안에 작게는 센서, 드론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로봇산업을 이 도시의 6대 전략 산업으로 넣었습니다.

왜 이것을 선정했냐면 대전시의 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미 도약하고 있고.

그래서 6대 전략산업으로 했고요.

그러면 이 전략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 좋은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용지 구축은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돈이기 때문에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해서 지금 펀드모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차 투자를 리베스트라는 이차전지 회사에, 아마 대전투자금융이 4월에 10억을 먼저 투자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상장기업을 조기에 100개 이상 달성해서 경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최소 3천억 그리고 5천억, 5천억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대전투자금융은 1조 원이 되든 2조 원이 되든 10조 원이 되든 100조 원이 되든 실리콘밸리처럼 대전밸리라는 최첨단 밸리를 지원하는 핵심 대전투자금융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충청은행이 문을 닫은 이후에 하나금융이나 이런 데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으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본사를 둔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호은행으로 출발하는데, 아마 최근 신문 보시면 대전이 유력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는 대전에 본사를 두기로 했습니다.

사옥을 대전에 짓고 1차로 한 200명쯤 직원들이 근무하기 시작해서, 대전에 본사를 둔 은행도 실현이 되겠다.

이것은 소상공인·자영업에 집중 지원하는, 그렇게 되면 굳이 다른 은행이 필요 없다, 소상공인·자영업 그리고 기업에 대한 대전투자금융,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카이스트 포함한 충남대, 한밭대, 한남대 등 지역대학의 최고위 석·박사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양자대학원, 반도체대학원, 반도체특성화대학원 등에 대해 기존에 없었던 시비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도시가 가고 있는 전략산업과 결합하기 위해서, 좋은 인재를 육성해야 이 도시의 산업에서 사람을 제대로 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지금 지역대학과 학과개편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대 전략산업과 대학의 학과를 결합하는 방법도 하고 있다.

그리고 6대 전략산업 관련해서 우주클러스터 3축도 확정됐고 국가 바이오특화단지도 선정됐고 양자테스트베드, 양자팍 구축사업 공모에도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창업원, 카이스트 의과학원, 로봇·드루트지원센터, 우주인재양성센터 등 조성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교촌동 나노·반도체 160만 평 산단, 안산국방산단 조성, 바이오 전략산업단지 신동·둔곡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원촌동까지 연결하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대전시의 상장기업은 제가 시장이 되고 17개가 늘었고 65개가 됐습니다.

금년에 아마 추가로 최소 10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이미 부산보다 40조 이상 큼니다.

대구보다는 더 벌어졌고요, 올 연말이면 더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64조쯤 되고 있습니다만, 변동은 심하지만 3년 안에 인천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대 전략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그리고 대전시의 관심 또 좋은 인재, 이것을 가능하면 저희는 10년 안에, 바이오는 이미 시가총액이 17개 시도 중에 1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300개의 바이오기업 이런 것들을 키워서 10년 안에 바이오는 대전이 석권하리라고 확신하고 있고, 아까 6대 전략산업도 10년 안에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이고 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6대 전략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도시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고 지원해 주시면 아마 힘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 의원님의 여러 가지 걱정, 조언을 잘 헤아려서 시정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송활섭 의원님께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의 특색 있는 틈새운동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틈새운동 활성화가 대전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아침, 점심, 방과후시간 같은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체육활동이 일상화되도록 틈새운동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체육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제고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수준별·그룹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인 365+ 체육온활동을 운영하며, 학교급별 주제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와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및 건강체력교실 등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틈새운동 확산을 위해서는 체육활동 공간도 매우 중요하므로 대전교육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학교 유휴공간 등의 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여 학교 체육시설 재구조화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틈새운동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학생건강체력평가, 다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PAPS입니다.
3년간 학생건강체력평가 PAPS 결과와 학생들의 체력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체지방, 순발력 등 5개의 체력요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학생건강체력평가 PAPS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1등급에서 3등급의 보통 이상 체력 학생 비율은 80.6%이고 4등급과 5등급 저체력 학생 비율은 19.4%입니다.

2023년도에는 1등급에서 3등급의 보통 이상 체력 학생 비율은 81.6%이고 4등급과 5등급 저체력 학생 비율은 18.5%입니다.

2024년도에는 1등급에서 3등급의 보통 이상 체력 학생 비율은 81.3%이며 4등급과 5등급 저체력 학생 비율은 18.7%입니다.

결과를 분석해 보면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건강체력평가 1·2등급 비율은 2022년 38%, 2023년 39.5%, 2024년 39.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4·5등급 학생의 비율은 2022년 19.4%, 2023년 18.5%, 2024년 18.7%로 감소하여 학생들의 건강체력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학생들의 신체활동 회복과 다양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체육동아리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학교에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별 교내 스포츠클럽 리그,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두런두런(Do Learn Do Run) 프로젝트, 학생과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에듀원스포츠클럽, 고등학생을 위한 고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역 전문체육 자원을 활용한 동고동락(洞Go同樂) 마을 단위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주말과 방학, 여가시간을 활용한 토요일스포츠클럽 리그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159교 3,028명의 많은 학생이 참여하여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튜터링 콘텐츠와 대전광역시체육회와 연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으로 종목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초·중·고 13만 8,069명이 참여하여 전체 인원의 92.8%의 높은 참여실적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2023년 대비 16.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교체육 활동은 학생들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의 신경을 자극해 학업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활동은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과 학업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증진으로 학교폭력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행복을 느끼고 꿈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송활섭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